

'완벽한 샤블리 그랑 크뤼의 우아함과 긴 여운'

## 도멘 롱 드파키 샤블리 그랑 크뤼 레 보데지르

Domaine Long-Depaquit Chablis Grand Cru Les Vaudesirs



지역	프랑스 > 부르고뉴 > 샤블리		
포도품종	샤르도네 100%		
알코올	13%	용량	750ml
등급	그랑 크뤼	시음 적정 온도	11-13°C
테이스팅 노트	프랑스 부르고뉴 서북부 샤블리 지역의 높은 고도의 경사면에 위치한 포도밭에서 자란 샤르도네 품종으로 만든다. 포도밭의 떼루아로 인해 특유의 산미와 미네랄리티가 표현되며, 스틸 탱크에서 리 숙성을 거친다. 도멘 롱 드파키의 그랑크뤼 등급 와인이며, 섬세하고 정교한 샤블리를 접할 수 있다. 해산물 페어링이 잘 어울린다.		
페어링 TIP	흰 육류 / 익힌 해산물 / 생 해산물 / 흰 살 생선 / 샐러드 / 부드러운 치즈 / 단단한 치즈		



## 제품설명



잘 익은 레몬과 자몽 껍질, 흰 꽃의 섬세한 아로마가 먼저 느껴지며, 차분한 미네랄 뉘앙스와 함께 젖은 돌, 백악질(Chalky) 터치가 복합적으로 펼쳐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헤이즐넛, 브리오슈, 은은한 오크 스파이스가 더해진다.

## 수상내역



2022 빈티지 92점  
2022 빈티지 와인 스펙테이터 Wine Spectator 93점

## 와이너리



1831년 Bernard Bichot에 의해 설립되어 가족 소유로 경영되어 온 알베르 비쇼(Albert Bichot)는 현재 6대째 자손인 알베릭 비쇼(Alberic Bichot)가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 부르고뉴 와인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써 주도권을 가지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알베르 비쇼는 부르고뉴 지역 4위의 업체이다. 매출의 70%를 전 세계 100여개 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부르고뉴 지역의 수 많은 와인들을 우수한 품질로 생산해내고 있는 노하우에 기반한다. 알베르 비쇼는 총 6개의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총 6명의 와인메이커가 각각 다른 와이너리에서 각각의 떼루아를 고려하여 양조하며, 이것은 알베르 비쇼만의 특별한 철학이다. 알베르 비쇼는 스웨덴 왕실 공식 와인 공급업체이며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서빙 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